

# 정기선의 글로벌 광폭행보… 현대重 경영승계 순항

〈현대重 부사장〉

## ▲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으로부터 승계수업  
사우디 해운사 바흐리와 31.9만톤급  
초대형유조선 건조계약 체결 기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1대1 면담하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 글로벌 영업 최전방에서 활약 중인 정기선 부사장의 경영 승계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 까지 미국 NRG센터에서 열린 '가스텍 2019'에 참석해 글로벌 경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부사장은 현대글로벌서비스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에서 분할 돼 출범했으며 현재 현대중공업지주회사로 편입됐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과 안광

현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곳은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유일하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스크러버 제품 공급부터 시운전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수주한 스크러버 및 평형수 처리장치 공사는 각각 140척, 65척이

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현대상선으로부터 35척의 스크러버 공사를 수주했고, SK해운으로부터 15척의 공사를 수주했다. 스크러버 수요는 전 세계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부품 사업 매출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부사장은 최근 사우디 국영 해운

사인 바흐리와 31만9000톤급 초대형유조선(VLCC)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정부사장은 가삼현 사장으로부터 국내외 영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승계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18개월 주기로 열리는 가스텍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가스텍은 천연가스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로 최신 시장동향과 프로젝트 소식,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대다. 정부사장의 가스텍 참석은 그룹 승계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정기선 부사장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정 부사장은 또 지난 6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사우디아람코·현대중공업·람프렐·바흐리 간 합작회사인 IMI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10%에서 20%로 늘리는 등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어 7월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

석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정동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25.08%를 보유중이다. 정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부사장은 5.1%를 갖고 있다. 아직 승계 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최대주주의 2세인 만큼 그룹 내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조845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VLCC)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선박은 30만 DWT(최대적재량) 규모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유 운반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15억4000만달러가 추가 수주되면 현대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46.7%로 뛰어오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까지 올해 수주 목표 159억달러 대비 37%인 59억달러를 수주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두산퓨얼셀 R&D/신사업본부장 문상진 상무(왼쪽부터), 현대차 전략기술본부 미래기술연구실장 오재혁 상무, 울산테크노파크 우항수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MOU 체결식에 함께 참석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현대차-두산퓨얼셀, 수소전기개발 맞손

연료전지 신사업 창출에 속도

현대자동차가 수소사회 비전 달성을 위한 연료전지 신사업 창출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두산퓨얼셀과 손잡고 친환경 분산발전 및 수소사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분산발전 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에 공동 착수했다.

현대차와 두산퓨얼셀, 울산테크노파크는 7일 현대차 의왕연구소에서 현대차 전략기술본부 미래기술연구실장 오재혁 상무, 두산퓨얼셀 R&D/신사업본부장 문상진 상무, 울산테크노파크 우

항수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マイ크로그리드용 수소연료전지 분산발전 실증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변동부하 대응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분산발전시스템에 대한 실증과 분산발전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을 추진한다.

공동으로 실증을 진행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현대차의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와 두산퓨얼셀의 인산형 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타입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울산테크노파크가 인프라 공사와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ysw@

## KT, 블록체인으로 할랄 인증시장 공략

인구 19억명, 시장규모 4348조 수준

KT는 7일 할랄 인증기관 KMF, 블록체인 기술 개발 전문기업 비스퀘어랩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할랄 인증 트러스트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할랄 인증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할랄 인구는 약 19억명, 전체 시장규모는 약 43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KMF 할랄위원회를 통해 올 상반기 기준 300여개 기업의 1000여개 품목이 인증을 취득했다.

KT는 KMF, 비스퀘어랩과 블록체인 기반 '할랄 인증 트러스트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ni@

## 화면이 곧 스피커…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개

### LG디스플레이 IMID 2019 참가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20여종 선봬

LG디스플레이가 제19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IMID 2019)에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20여종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올레드 TV와 차량용 플라스틱 올레드 등 프리미엄 올레드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88인치 8K 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가장 큰 올레드일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크리스탈 사운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아울러 65인치 UHD 올레드 4장을 붙여 장미꽃 형태로 만든 '더 로즈', 가장 응답속도가 빠른 크리스탈 모션 올레드, 55인치 투명 올레드 등도 함께 자리한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는 플라스틱



LG디스플레이는 IMID에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 20여종을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

올레드를 적용한 12.3인치 커브드 클러스터와 투명 디스플레이 등이 나온다.

LCD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뽐낸다. '인터치'를 적용한 86인치 전자칠판과 43인치 터치 키오스크,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와 노트북용 디스플레이 등이다.

/김재웅 기자 juk@

### 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장에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내 제반현황 심층검토 조언

현대제철은 '행복일터 안전·환경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사진)를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제철 자문위원회는 회사의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발족했으며, 학계·법조·안전·환경·보건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사내 제반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원 대법관 출신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한편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책을 맡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 이번 자문위원장 위촉 배경에도 이 같은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제철의 자문위원회는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안전개선대책안'을 비롯한 회사의 안전 및 환경부문의 각종 정책수립에 조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도 높은 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연우 기자

### KT SAT

#### 필리핀 초등학교서

#### IT 교육여건 개선 봉사

위성통신기업 KT SAT은 필리핀 카피테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정보기술(IT) 교실을 재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은 KT SAT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KT그룹희망나눔재단과 국제 NGO인 해피피플도 함께했다.

KT SAT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기부와 인터넷 설치 등 IT 교육 여건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KT SAT은 국내 유일 위성사업자로서 위성의 개념과 발사 원리를 이해하는 애어 로켓 만들기 우주과학 교육을 시행했다. /김나인 기자